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분석  
—서울지역 아파트 거주 주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Home Management by the Life Style Types  
among Housewive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문 숙 재  
대학원생 김 혜 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

Associated Prof.; **Sook Jae Moon**

Graduate School Student; **Hye Yeon Kim**

<목 차>

I. 서론	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I.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문제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basis data to understand homemanagement by patterning of the life styles of housewives and by analysing the disposition of homemanagement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the behavior pattern to the differences of the life style patterns of housewive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By utilizing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life style types of housewive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namely, self-fulness type (28.4%), negative stagnation type (22.7%), fashion-convenience type (23.3%), innovation-urging type (25.6%).

2. The life style types of housewives which were classified,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ll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except family size variable.

3. The disposition of homemanagement behavior which were classified into inner-directed type and other-directed typ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husband's age variable.

4. The patterns of homemanagement behavior which were classified into market pattern and service patter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all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5. The disposition and the pattern of homemanagement behavior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life style types of housewives.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가정관리행동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은 가족구성원들의 가치나 목표 그리고 기준에 근거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창조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적인 활동<sup>1)</sup>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관리행동은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므로, 가정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가정관리자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문제는 가족의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자, 즉 가정관리자는 생활자원을 스스로의 설계에 따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하나의 생활양식을 유기적으로 구성·유지하려는 주체이다.<sup>2)</sup> 그러므로 가정관리자는 가정을 통해 주어진 환경적 여건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생활양식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생활양식이란 생활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어 오는 것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생활의 모든 것을 방향짓고 통합하는 것<sup>3)</sup>이므로, 가정관리자의 가정관리행동은 유형화된 생활양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양식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특성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그 결과는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및 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정책, 전략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관리행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부의 생활양식을 조사·분석하여 그들이 지닌 생활양식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생활양

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및 행동유형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첫째, 생활양식 요인인자를 이용한 집락분석을 통해 주부들의 생활양식을 몇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둘째, 분류된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가정관리행동을 행동성향과 행동유형의 두 측면에서 살펴본 후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넷째,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 1) 생활양식(life style)

활동(Activity), 관심(Interest), 및 의견(Opinion)의 통합적 체계를 의미한다.

#### 2) 가정관리행동

주부들의 가정내부와 외부에서 가정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며, 행동성향과 행동유형의 두 측면으로 고찰된다.

#### 3)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을 방향짓고 규정짓는 욕구구조, 즉 정신적 측면을 의미하며, 그 성향을 '내부지향형'과 '타인지향형'으로 분류한다. '내부지향형'이란 타인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유형을 말하며, '타인지향형'이란 자신보다는 타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행동하는 유형을 말한다.

#### 4) 가정관리행동의 행동유형

가사작업의 사회화정도의 비율, 즉 자급자족도와 시장의존도의 구성비율에 따라 '시장의존형'과 '용역형'으로 분류한다. '시장의존형'은 욕구충족을 위한 기능과 노동이 시장에 대부분 이전되어 있어서 가사작업의 사회화정도가 높은 유형을 말하며, '용역형'은 가능한 한 시장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욕구충족을 위해 노동

하는, 즉 가사작업의 사회화정도가 낮은 유형을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양식

#### 1) 생활양식의 개념

생활양식의 개념은 1950년대의 동기(motivation) 연구 또는 개성(personality)연구를 통하여 나온 것으로 Kelly의 인간행동이론(a theory of human behavior)에 기초를 두고 있다. Kelly에 의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생활을 예견하고 통제하려고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주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대처하는 개념(concept)이나 유형(pattern)을 형성하고, 이러한 개념 및 유형을 사용하여 자기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개념화하여 예측하고 해석한다<sup>4)</sup>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제각기 다른 개념 및 유형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석하므로 생활양식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즉 인간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목표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므로, 과거생활환경에 대해 대처했었던 경험 혹은 생활과제의 독자적인 해결방법 및 미래의 목표를 향한 노력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게 되며, 이러한 전체적인 일관성이 생활양식인 것이다.<sup>5)</sup>

이와 같은 생활양식의 개념을 소비자 행동연구 및 마케팅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한 Lazer는 생활양식이란 시스템(system)개념으로, 집합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특징적인 생활방식(mode of living)<sup>6)</sup>이라고 하였다.

한편 생활양식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활동), 그들 주변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관심), 그들 자신과 그들 주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견)로 구별<sup>7)</sup>되는 개인의 정형화된 태도, 관심, 의견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이다. 이렇게 정형화된 태도, 관심, 의견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이 생활양식은 개인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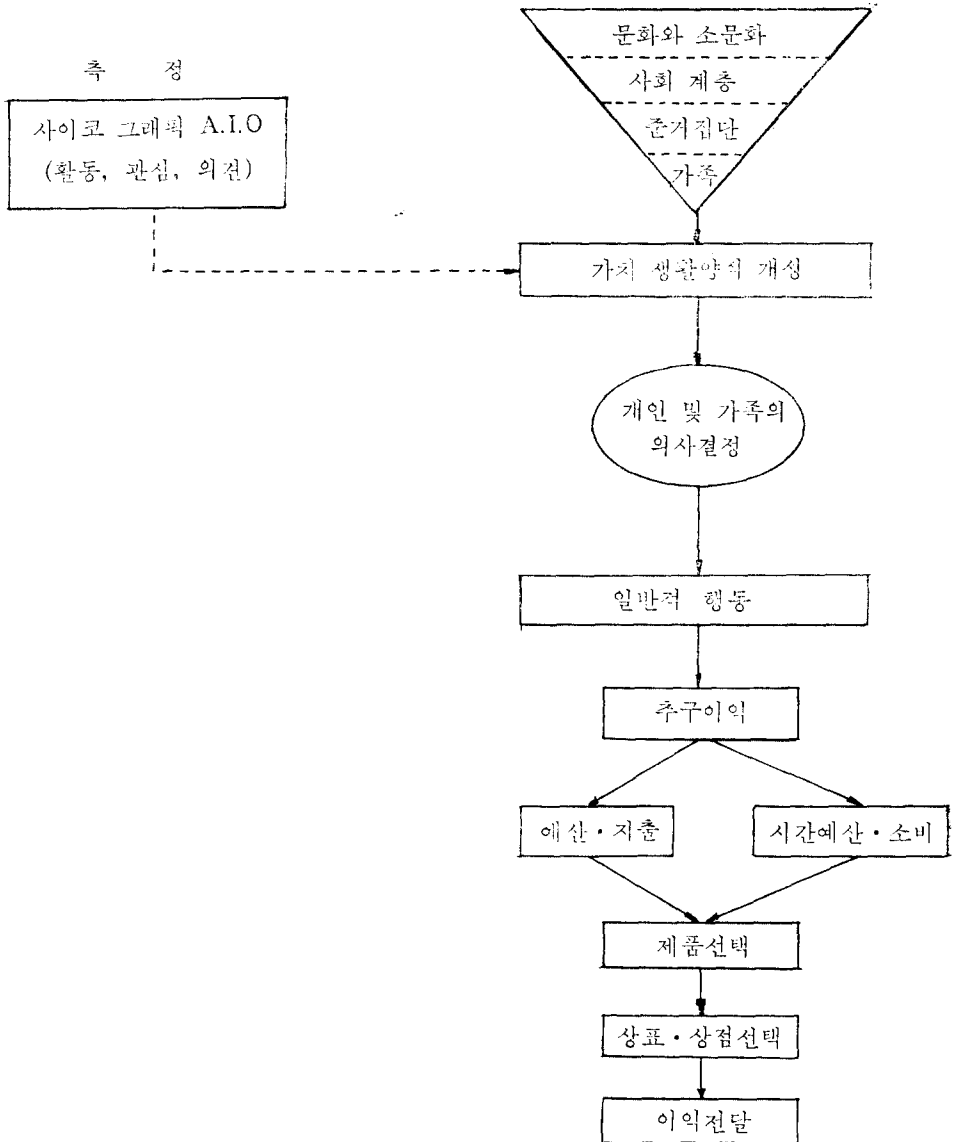
및 소비방식에 반영된다<sup>8)</sup>(그림 1). 그래서 생활양식은 간단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과 화폐를 소비하는 양상<sup>9)</sup>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차옥은 생활양식이란 생활주체가 ① 생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하는 과정에서 ② 스스로의 독자적 욕구성향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고 ③ 스스로의 가치태도, 생활목표, 생활설계에 의해 방향을 결정하고 ④ 의부사회(기업, 정부, 지역사회등)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어비스, 정보, 기회를 선택적으로 채용, 종합하여 ⑤ 사회문화적인 제도에 의해 계약을 받아 ⑥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또는 일생의 사이클을 통해 능동적·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⑦ 생활의식과 생활구조와 생활행동의 3개 차원에서 구성된 패턴화된 시스템이다<sup>10)</sup>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양식의 개념 및 정의는 여러 학문적 측면에서 가치, 태도, 인성 및 동기 등의 관련개념들과 함께 이론적 탐구가 이루어져 그 학문적 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생활양식은 구체적인 행동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갖는 특징적인 필요와 요구의 유형에 의해 행동성향에 차이를 가져오는, 단순한 가치관이나 태도가 아닌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분석방법

생활양식의 유형이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생활양식의 분석방법은 첫째, 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회전체 또는 특정사회에 있어서 생활양식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려는 거시적 분석방법과 둘째, 주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심리측정의 계기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유형 그 자체를 측정·분석하여 사회적 경향의 파악이나 예측을 하려는 미시적 분석방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sup>11)</sup> 미시적 분석방법 중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는 생활양식 측정을 위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sup>12)</sup>이다. 일반적으로 사이코그래픽스란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을 조사에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인구통계적 분석 또는 사회경제적 및 사용자-비사용자 분석으로는 행동의 설명이나 예측이 불충분할 때 이용하는 계량적 연구·조사의 절차이다.<sup>13)</sup> 사



〈그림 1〉 생활양식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출처 : J.F. Engel, R.D. Blackwell & D.T. Kollat(1978), *Consumer Behavior*, 3rd, ed.  
Hinsdale Illinois: Dryden Press, p.174.

이코그래픽스 연구의 근본 목적은 자료를 인간화시키는 것이므로 심리학적 또는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은 개별소비자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4)</sup> 사이코그래픽스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전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의 것이며 질적 방법이 아닌 양적인 방법<sup>15)</sup>이라고 Wells는 밝히고 있다. 사이코그래픽스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는 구별되는 심리적인 경향을 측

정하는 정량적인 분석<sup>16)</sup>으로 성격적, 기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성(personality)변수를 사용<sup>17)</sup>하고 있고, 표준화되지 않은 조사에서 나타나는 활동(Activity), 관심(Interest), 의견(Opinion) 즉 AIO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18)</sup>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목인 AIO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sup>19)</sup>

**활동(Activity)**: 매체접촉, 쇼핑,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웃과의 대화등과 같은 명백한 행동으로 이는 쉽게 관찰되지만 그러한 행동의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측정되지 못한다.

**관심(Interest)**: 어떤 객체나 사건 또는 화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은 특별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수반하는 자극의 정도를 말한다.

**의견(Opinion)**: 어떤 질문이 이루어진 자극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구두 또는 서술형의 대답이며 타인의 의향에 대한 믿음, 미래사건의 예측, 또는 포상이나 처벌의 평가와 같은 해석, 기대평가 등을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양식 분석조사의 자료해석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과제가 주어진다.<sup>20)</sup>

첫째, 생활양식 제변수에 의해 구성된 생활양식 공간의 구조를 주성분 분석, 인자분석 등의 적용에 의해 밝힌다. 이것은 주어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기본적인 차원, 혹은 잠재적인 차원을 찾아내는 동시에 이들 차원을 좌표축으로 해서 변수군을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주성분 분석, 인자분석 등에 의해 얻어진 기본적인 차원이나 잠재적인 차원의 마케팅적 의미를 인자특점프로필, 인자특점에 의한 그룹별 크로스집계, 인자특점에 의한 마케팅적 기준변수에 대한 중회귀분석, 판별분석 등을 행하여 밝혀낸다.

셋째, 세분화분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집락분석이다. 집락분석은 각 대상이 가진 특성치의 형태에 의해 일군의 대상을 상대적으로 동질인 몇 개의 집단으로 분할하려는 기법으로, 즉 자료에 의해 표현된 「자연적 유형」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네째, 집락분석의 결과 생활양식 공간에 있는 몇

몇 부분을 찾아내면 각 부분의 특성을 밝혀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된 생활양식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행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게 된다.

## 2. 가정관리행동

### 1) 가정관리행동의 개념

가정은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생활의 장으로,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일차적인 환경으로써 기능한다.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존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며, 생활문화를 창조<sup>21)</sup>하려는 가정관리행동은 가족구성원들의 생활을 이끌어 가고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욕구충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관리행동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관리자가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포함한 하나의 과정<sup>22)</sup>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재형성되고, 재검토되며, 재발견되고 있다.<sup>23)</sup> Nickell, Rice와 Tucker는 관리행동은 가치의 실현과 욕구의 충족을 지향한 계획된 활동이며 바람직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활의 모든 국면, 즉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기술적 국면과 관련된 과학적 제발견과 지식을 활용하게 된다<sup>24)</sup>고 하여 관리행동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정관리행동은 창의성이 포함된 목적적인 행동과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사용이다. 여기서 자원이란 가족구성원 전체의 자원을 말하며 시간, 노력, 금전, 물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식, 흥미, 능력, 기술, 태도 및 지역사회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sup>25)</sup> 즉 가정관리행동은 가족구성원의 만족을 크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추구되는 가치는 가족구성원의 인격적 성장<sup>26)</sup>인 것이다. 장명옥에 따르면 가정관리행동이란 가족 및 가정생활의 향상과 행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건전한 생활이념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실행하고 그 결과가 가정생활에 어떠한 가치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하여 나아가서는 더

효과적인 다음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sup>27)</sup>이다.

이상의 가정관리행동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관리행동이란 가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가족구성원의 양적·질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목표를 달성시키고, 나아가서는 생활수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2)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및 행동유형

### ①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인간의 행동을 방향짓고 규정짓는 인간의 성격구조 혹은 가치의 특성은 여러 사회과학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성향은 내향성과 외향성, 타인에 대한 의타심을 중심으로 의타성과 독립성, 혹은 권위적인 정도를 기준으로 권위성과 비권위성 등의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8)</sup> 한편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은 가정생활 중 끊임없이 발생하는 관리적인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념<sup>29)</sup>으로 인간행동의 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은 한 사회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한되므로, 사회경제적인 발달에 따른 인간행동의 성향을 분류한 Riesman의 분류개념<sup>30)</sup>은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Riesman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남미에 있는 국가와 더불어 전통탈피형 사회내지 내부지향적 사회(inner-directed society)로 대표적인 인간행동의 성향은 내부지향성이다. 이 행동성향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습관을 벗어나 자신의 욕구와 일치되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며 경제성을 추구한다. 한편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는 타인지향적 사회(other-directed society)로 타인지향적인 행동의 성향이 지배적이다. 이 행동성향의 특징은 타인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생산자는 획일화된 생산체제 속에서 개성을 상품화해내며, 소비자는 균일화, 단순화, 규격화 및 표준화된 상품에서 만족을 얻는다. 또한 타인지향성이란 절약대신 소비를 신봉하며, 매스컴을 통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을 타인지향성과 내부지향성으로 파악한 실증적 연구는 없으나 김

동기는 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주도형 경제가 중심이 된 타인지향적 행동성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타인지향성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및 문화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지배적인 현상이며, 내부지향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치관 및 신제품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sup>31)</sup>

한편 가정관리행동이 타인지향적 성향을 지닌다면 허세, 허식, 체면등의 형식에 치우친 과시적 행동의 결과로 가정생활 중 여러 측면에서 갈등요소가 존재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행동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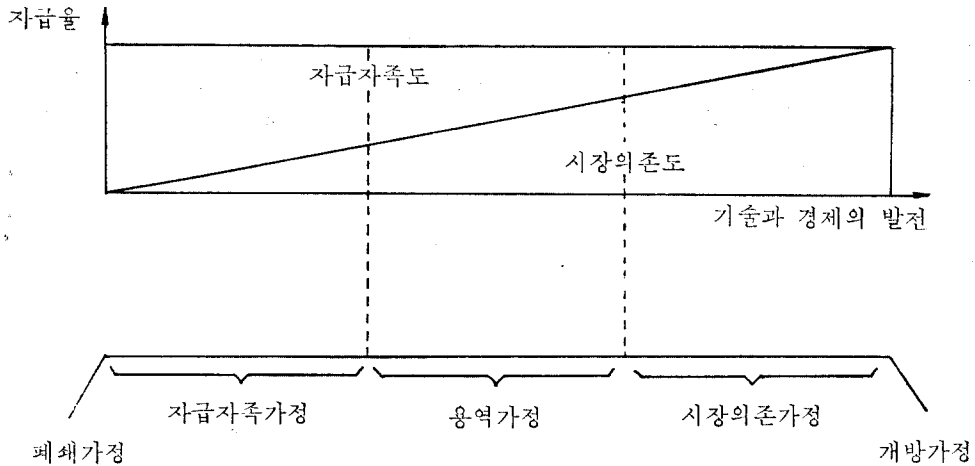
### ②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정관리행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내의 인적·목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욕구충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것<sup>32)</sup>은 가사작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나타난다.

가사작업은 협의로 보면 개인적 소비를 위한 준비이며,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가족의 부양, 양육, 교육 등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들을 의미하게 된다.<sup>33)</sup> Walker와 Woods에 의하면 가사작업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게 해주는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기 위해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의도적인 행동<sup>34)</sup>이다. 따라서 가사작업을 통해 가족단위가 기능하게 되며 가족을 위한 재화와 용역이 생산<sup>35)</sup>되므로 가사작업은 소비적 측면과 함께 가족구성원을 위한 효용을 창출하는 생산적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sup>36)</sup>

이와 같은 가사작업의 생산적 측면은 분리할 수 있는 가사작업의 생산적 측면으로 유급의 노동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적인 것이다. 이에 비해 가족구성원에 의해 행해지기는 하지만 시장생산이나 분리할 수 있는 가정생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생산을 분리할 수 없는 가정생산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독특한 인간특성과 인간관계들이 포함되므로 유급의 노동자에게 효율적으로 위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리할 수 있는 가사작업의 생산적 측면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가사작업의 생산적 측면은 소득, 시장조건, 개인적 기호 등과 같은 환경조건이 가정



〈그림 2〉 자급자족과 용역 교환정도에 따른 가정의 유형

출처 : Hack Underkircher(1976), *Der Organisierbare Haushalt*, Essen, p.76. 을 문숙재, 채옥희 (1986), p.16에서 재인용.

의부인에게의 위임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활동들은 시장상품과 유급의 용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sup>37)</sup> 따라서 가사작업은 가족이 수행하는 대신에 가정 기구나 고용인의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상품으로 구입하는 등 가정의 용역과 제품을 이용하여 대체시키는 가사작업의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정관리행동의 구체적인 행동유형은 가사작업의 사회화에 대한 선호도에 따른 이용도에 의해 시장의존형과 용역형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문숙재는 가정관리행동의 시장의존성을 중심으로 가정의 유형을 분류하였다.<sup>38)</sup>〈그림 2〉. 자급자족가정은 욕구충족에 필요한 일체의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는 형태이며, 용역가정은 가능한 한 시장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가족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동하는 가정이며, 시장의존가정은 욕구충족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과 노동을 시장에 이전시키고 자원의 배분을 주로하는, 즉 가사작업이 거의 사회화된 형태이다. 오늘날의 가사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구매행위를 하고 그러한 구매행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가족구성원들

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켜 그들에게 제공하며, 또 변형된 재화를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가족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용역가정의 형태가 보편적인 가정형태임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자인 주부가 시장의존적 가정관리행동을 보일 때 가정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이로운 점은 첫째, 가사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자유시간이 증가되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공동구입을 할 경우나 독신자의 경우 경제적인 잇점을 얻을 수 있고 셋째,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가정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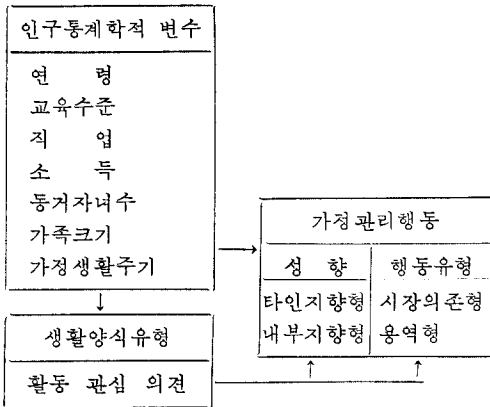
그러나 시장의존형의 가정관리행동은 가정관리의 단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단점으로는 첫째, 노동을 금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인해 지출이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둘째, 규격화 유형화된 상품의 이용으로 가정의 개성이 상실되고 셋째, 그것을 이용하는 가족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넷째, 가정상호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역할이 어려워지기도 하며<sup>41)</sup> 다섯째, 가정생활이 기업에 종속되어 비인간적이 되기 쉽고 여섯째, 가정생활의 공통성의 분산을 초래하고 여덟째, 식품의 안

전성의 문제와 의식의 증가로 편식이 되기 쉽다<sup>42)</sup>는 문제가 있다. 더우기 시장의존적 가정관리행동은 시장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질의 상품을 가족구성원에게 공급하여 시장에서 구입한 상품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sup>43)</sup>을 포기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시장의존적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장·단점의 고찰은 대체적 개념으로서의 용역형 가정관리행동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해 준다.

### Ⅲ.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문제

위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생활양식유형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변수와 생활양식유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주부들의 생활양식은 어떤 유형을 보이는가
- (2) 주부들의 생활양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3)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성향과 행동유형)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4) 각각의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성향과 행동유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Ⅳ.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활양식,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따른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부의 연령, 부부의 교육정도, 부부의 직업, 동거자녀수, 가족크기, 가정생활주기에 관한 7개 문항으로 이 중 직업은 홍두승<sup>44)</sup>의 분류를 사용하였고, 가족생활주기는 유영주<sup>45)</sup>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 2) 생활양식

생활양식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항목은 여러 선행 연구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AIO 항목을 포함한 사이코그래픽스로 구성하였다(표 1).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2로 높았다.

#### 3)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을 타인지향형과 내부지향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18개 문항으로 정성자<sup>46)</sup>, 문숙재<sup>47)</sup>, 장명옥<sup>48)</sup>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모두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 4)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정관리행동을 용역형과 시장의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13개 문항으로 강정옥<sup>49)</sup>,

<표 1> 생활양식의 분석을 위한 조사내용(50문항)

활동(Activity)	관심 (Interest)	의견(Opinion)
가정활동	가족	성역할
취미여가활동	사회	사회문제
소비구매활동	직업	자기자신
지역사회활동	유행	제품
유행추종활동	건강	미래에 대한 전망
매체선택활동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
	재무	교육
	성취	주택
	스포츠	



문숙재<sup>50)</sup>, 장명옥<sup>51)</sup>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모두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 생활수준,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각 가정을 대표하는 30명의 주부들에게 면접과 설문용 통한 예비조사를 한 후,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에 착수하였다.

본 조사는 1985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족생활주기를 근거로 분류한 학생집단들 중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아파트거주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는데, 일부는 면접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524부(74.9%)로 이들 중 응답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499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선택하였다.

## 3. 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실태 분석에는 단순빈도나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자료처리는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반복주요소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iteration)과 최대 혹은 최소 요인 함유량(factor loading)에 따른 배리맥스(varimax) 접근법을 이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최소아이겐 값(mini eigen value) 1.0과 스크리점정기준(scree-test criterion)을 이용하여 요인의 수를 3개로 결정하였고, 이 3개의 요인을 이용하여 유클리드(euclid) 거리를 중심으로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다. 집락수는 집락수에 따라 소속되는 표본수와 3개의 좌표상의 집락형성상태를 검토하여 4개로 결정하였다. 생활양식항목과 집락과의 교차집계(%)를 살펴본다 절대적 비율과 상대적 비율의 크기로서 집락의 생활양식의 구성항목을 결정하여 집락에 생활양식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이상과 같은 단계로부터 파악된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와 가정관리행동의 차이는  $\chi^2$ -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가정관리행동은 각 응답범주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정관리행동의 성향과 행동유형을 분류하였고,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chi^2$ -test를 통해 분석되었다.

## 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면,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전체의 45.7%로 가장 많았고, 주부의 경우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11.6%), 50세 이상(8.2%)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대졸이 63.9%로 가장 많았고, 주부의 경우 역시 대졸이 51.9%로 가장 많으며, 고졸이 35.1%, 중졸이하가 8.0%, 대학원졸이상인 5.0%로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높았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의 경우는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78.0%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나 취업했을 경우 전문직, 관리직이 7.4%, 기술직, 사무직이 8.6%로 주부의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소득은 81~100만원이 24.4%, 41~60만원이 23.9%, 61~80만원이 20.8%, 101만원이상이 16.6%, 40만원이하가 14.2%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정내에 동거하는 자녀수는 2명이 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명이 32.3%, 1명이하가 16.6%, 4명 이상이 11.2%의 순이었다. 가정의 가족크기는 5명이 34.1%로 가장 많았고 4명이 33.3%, 6명 이상이 20.0%이었으며, 3명이하는 12.6%였다. 가정생활주기별로는 형성기가 4.8%, 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13.8%, 자녀교육기가 57.9%, 자녀성년기가 11.0%, 자녀결혼기가 5.4%, 노년기가 7.0%였다.

### 2.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양식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시도된 제분석단계에 따라 우리나라

**<표 2-1> 자기충실형의 구성항목의 특성****자기충실형**높게 반응한 대표항목

1.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여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편이다. (85.82%)
2.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일에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 (85.10%)
10. 소득 중 일부를 우선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75.18%)
18. 신문의 경제란을 관심있게 읽는다. (73.05%)
25. 지금 나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75.89%)
29. 노력에 따라 응분의 댓가가 있을 것으로 믿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한다. (85.11%)
30. 집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려 한다. (73.05%)
33.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사지 않는다. (85.82%)
50. T.V.나 라디오의 뉴스를 시청 또는 청취한다. (92.20%)

낮게 반응한 대표항목

5. 무슨 일이든 유행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0.71%)
17.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9.22%)
23. 유명상표가 제값을 한다. (21.88%)
34. 충동구매가 종종 있다. (18.44%)
42. 나의 여가시간은 지루할 때가 많다. (8.51%)
49. 오락프로그램을 즐겨본다(ex. 코미디, 쇼). (37.46%)

**<표 2-2> 소극적 집체형의 구성항목의 특성****소극적 집체형**높게 반응한 대표항목

9. 돈이 없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5.40%)
14. 여성들의 주된 활동장소는 가정이다. (78.76%)
16. 여성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78.76%)
19.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다. (53.09%)

42. 나의 여가시간은 지루할 때가 많다. (30.08%)

낮게 반응한 대표항목

5. 무슨 일이든 유행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3.53%)
10. 소득중 일부를 우선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41.59%)
11. 신용카드와 가계수표이용에 흥미가 있다. (14.16%)
12. 마음먹은 일이면 어떤일이 있더라도 꼭 해내 고야 만다. (28.31%)
14. 야외스포츠를 즐긴다. (7.96%)
18. 신문의 경제란을 관심있게 읽는다. (49.56%)
2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23.89%)
21. 다른 사람에게 소개될 때 좀처럼 당황하지 않는다. (38.05%)
25. 지금 나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32.74%)
37. 항상가격을 확인하고 가장 싼것을 고른다. (48.67%)
40. 내 친구들이나 이웃사람들이 가끔 내 조언을 들으러 온다. (14.16%)
43. 야외스포츠를 즐긴다(ex. 등산, 테니스, 수영 스케이팅, 스키). (7.96%)
46. 화초가꾸기, 애완동물사육, 뜨개질 중 어느한 가지를 즐긴다. (39.82%)

**<표 2-3> 유행·편리추구형의 구성항목의 특성****유행·편리 추구형**높게 반응한 대표항목

4. 옷을 구입할 때 유행하는 모양과 색을 고른다. (63.80%)
5. 무슨 일이든 유행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22.41%)
6. 몸의 작은 이상에도 몹시 민감하다. (77.59%)
7. 건강을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음식에 신경을 쓴다. (63.79%)
13. 스포츠중계 시청을 즐긴다. (34.48%)

- 15. 남편이 부엌일을 돕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 (56.04%)
- 19.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다. (50.00%)
- 21. 다른 사람에게 소개될 때 좀처럼 당황하지 않는다. (70.69%)
- 22. 일반제품에 있어서 국산은 외제보다 못하다. (36.20%)
- 23. 유명상표가 제값을 한다. (50.00%)
- 27. 집의 실내장식은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이 좋다. (77.59%)
- 28. 재산증식을 위해서라면 이사를 자주 가는 것도 괜찮다. (43.10%)
- 32. 시간이 걸리는 음식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한다. (58.62%)
- 36. 제조회사의 상표를 믿고 계속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 (68.97%)
- 42. 집에 있는 시간엔 친구나 이웃과 이야기하며 보낸다. (42.23%)
- 45. 포커나 화투놀이를 즐기는 편이다. (15.51%)
- 49. 오락프로그램을 즐겨본다. (코미디 쇼)(50.0%)

낮게 반응한 대표항목

두드러지게 낮게 반응한 항목이 없다.

**<표 2-4> 혁신·충동형의 구성항목의 특성**

혁신·충동형

- 높게 반응한 대표항목
- 3. 여성들이 가질수 있는 직업에 관한 흥미가 높다. (71.66%)
  - 8. 여가시간이 없어 불만이다. (40.15%)
  - 11. 신용카드와 가계수표 이용에 흥미가 있다. (37.01%)
  - 24. 우리집의 생활수준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85.83%)
  - 25. 지금 나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72.44%)
  - 34. 충동구매가 종종 있다. (63.78%)
  - 35. 바겐세일 광고를 주의깊게 살핀다. (59.84%)
  - 43. 야외스포츠를 즐긴다(ex. 등산, 테니스, 수영

스케이트, 스키). (32.29%)

낮게 반응한 대표항목

- 9. 돈이 없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7.88%)
- 13. 스포츠 중계 시청을 즐긴다. (19.68%)
- 14. 여성들의 주된 생활장소는 가정이다. (48.03%)
- 15. 남편이 부엌일을 돕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 (19.68%)
- 16. 여성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53.54%)
- 30. 집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려 한다. (36.22%)
- 31. 집안일은 식구들이나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해내고 있다. (18.89%)
- 33.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다. (31.49%)
- 37. 항상 가격을 확인하고 가장 싼 것을 고른다. (22.07%)

**<표 3>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과 그 분포(N=499)**

집락번호	생활양식유형	표본수	%
1	자기충실형	141	28.4
2	소극적 침체형	114	22.7
3	유행·편리추구형	117	23.3
4	혁신·충동형	127	25.6
	전 체	499	100.0

라 서울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은 4개로 분석되었고, 각각의 구성항목의 특징 <표 2>에 의해 <표 3>과 같이 명명되었다. 그러나 각 생활양식유형의 크기는 통계적 기법에 의한 의도적인 크기로 그 실제적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주부들의 4가지 생활양식유형의 특징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충실형(28.4%)**

이 집단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유행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주관에 의해 생활해 나가는

〈표 4〉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N=499)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활양식 유형	자기 충실형	소극적 집체형	유형리추구형	행위	혁신충동형	생활양식 유형		자기 충실형	소극적 집체형	유형리추구형	혁신충동형
							인구통계학적 특성	유형리추구형				
남녀별 연령의	20~29세	2(0.40)	4(0.80)	5(1.00)	5(1.00)	#25(5.02)	구	#114(80.85)	#97(85.84)	#97(85.84)	#97(85.84)	#97(85.84)
	30~39세	32(6.43)	22(4.42)	26(5.22)	26(5.22)	#46(9.24)	유	27(19.15)	16(14.16)	19(16.38)	19(16.38)	79(62.20)
	40~49세	#81(16.27)	51(10.24)	#54(10.84)	#54(10.84)	41(8.23)						
50세 이상		26(5.22)	#37(7.43)	#31(6.22)	#31(6.22)	15(3.01)						#48(37.80)
x <sup>2</sup> =68.800 DF=9 ***P=0.000												
주부연령의	20~29세	6(1.20)	9(1.80)	9(1.80)	9(1.80)	#34(6.81)	소	1(0.20)	#7(1.41)	#3(0.60)	#3(0.60)	1(0.20)
	30~39세	#58(11.62)	40(8.02)	#50(10.02)	#50(10.02)	#51(10.22)	41~60개월	30(6.04)	#42(8.45)	#35(7.04)	#35(7.04)	23(4.63)
	40~49세	#67(13.43)	#50(10.02)	45(9.02)	45(9.02)	37(7.41)	61~80개월	#29(5.84)	#26(5.23)	20(4.02)	20(4.02)	25(5.03)
50세 이상		11(2.20)	#15(3.01)	#12(2.40)	#12(2.40)	5(1.00)	81~100개월	17(3.42)	#19(3.82)	22(4.43)	22(4.43)	#22(4.43)
							101개월 이상	#64(12.88)	#19(3.82)	36(7.24)	36(7.24)	#56(11.27)
x <sup>2</sup> =25.202 DF=3 ***P=0.000												
남편의 직업수준	증원이함	2(0.40)	#8(1.60)	#4(0.80)	#4(0.80)	1(0.20)	1명 이하	19(3.81)	13(2.61)	14(2.81)	14(2.81)	#39(7.82)
	고대	13(2.61)	#26(5.21)	#19(3.81)	10(2.00)	8(1.60)	2	53(10.62)	45(9.02)	46(9.22)	46(9.22)	#53(10.62)
	대학원졸이상	#100(20.04)	63(12.63)	71(14.23)	#84(16.83)	#84(16.83)	3	#47(9.42)	#40(8.02)	#45(9.02)	29(5.81)	29(5.81)
		#27(5.41)	16(3.21)	23(4.61)	#32(6.41)	5(1.00)	4명 이상	#22(4.41)	#16(3.21)	12(2.40)	12(2.40)	6(1.20)
x <sup>2</sup> =48.154 DF=9 ***P=0.000												
주부연령의	증원이함	6(1.20)	#22(4.41)	9(1.80)	9(1.80)	5(1.00)	3명 이하	16(3.21)	11(2.20)	14(2.81)	14(2.81)	#24(4.81)
	고대	#51(10.22)	#49(9.82)	#47(9.42)	27(5.41)	27(5.41)	4	43(8.62)	#43(8.62)	35(7.01)	35(7.01)	#43(8.62)
	대학원졸이상	#80(16.03)	43(8.62)	58(11.62)	#77(15.43)	#77(15.43)	5	46(9.22)	39(7.92)	#47(9.42)	38(7.62)	38(7.62)
		5(1.00)	0(0.00)	2(0.40)	#18(3.61)	18(3.61)	6명 이상	#37(7.41)	21(4.21)	20(4.02)	20(4.02)	22(4.41)
x <sup>2</sup> =28.809 DF=9 **P=0.001												
남편의 직업수준	대기업주	6(1.20)	#22(4.41)	9(1.80)	9(1.80)	5(1.00)	형성기	4(0.80)	#6(1.20)	#3(0.60)	#3(0.60)	#13(2.61)
	가정부의 최고	#51(10.22)	#49(9.82)	#47(9.42)	27(5.41)	27(5.41)	자녀출산 및	12(2.40)	9(1.80)	11(2.20)	11(2.20)	#37(7.41)
	사무직	#80(16.03)	43(8.62)	58(11.62)	#77(15.43)	#77(15.43)	자녀교육기	#95(19.04)	#66(13.23)	1(14.23)	1(14.23)	55(11.02)
		5(1.00)	0(0.00)	2(0.40)	#18(3.61)	18(3.61)	자녀성년기	#19(3.81)	11(2.20)	11(2.20)	11(2.20)	14(2.81)
							자녀결혼기	6(1.20)	4(0.80)	#14(2.81)	#14(2.81)	3(0.60)
							노년기	5(3.00)	#18(3.61)	7(1.40)	7(1.40)	5(1.00)
x <sup>2</sup> =69.141 DF=9 ***P=0.000												
N.S												
x <sup>2</sup> =75.914 DF=15 ***P=0.000												

\*P<.05 \*\*P<.001 \*\*\*P<.0001 # 기메치<관찰치

〈표 5〉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N=499)

인구통계학적특성	가정관리행동성향		가정관리행동성향	
	타인지향형	내부지향형	인구통계학적특성	가정관리행동성향
남편의 연령	#28(5.61) #70(14.03) #115(23.05) #58(11.62)	8(1.60) 57(11.42) #113(22.65) #50(10.02)	주부취업	유
20~29세	#28(5.61)	8(1.60)	소	x <sup>2</sup> =0.480 DF=1 N.S.
30~39세	#70(14.03)	57(11.42)	40만원이하	
40~49세	#115(23.05)	#113(22.65)	41~60만원	
50세이상	#58(11.62)	#50(10.02)	61~80만원	
주부의 연령	#38(7.62) #109(21.84) #104(20.84) #20(4.01)	20(4.01) 91(18.24) #96(19.24) #21(4.21)	특	x <sup>2</sup> =2.316 DF=4 N.S.
20~29세	#38(7.62)	20(4.01)	1명이하	
30~39세	#109(21.84)	91(18.24)	2	
40~49세	#104(20.84)	#96(19.24)	3	
50세이상	#20(4.01)	#21(4.21)	4명이상	x <sup>2</sup> =0.685 DF=3 N.S.
중졸이하	5(1.00)	#8(1.60)	3명이하	
고졸	31(6.21)	#37(7.41)	4	
대학원이상	#176(35.27) #59(11.82)	143(28.66) 40(8.02)	5	
남편의 직업	#18(3.61) #92(18.44) #148(29.66) #13(2.61)	#22(4.41) #83(16.63) #111(22.24) #12(2.40)	가중크기	x <sup>2</sup> =0.880 DF=3 N.S.
중졸이하	18(3.61)	#22(4.41)	정성기	
고졸	#92(18.44)	#83(16.63)	정출산및양육기	
대학원이상	#148(29.66) #13(2.61)	#111(22.24) #12(2.40)	자녀교육기	
남편의 직업	대기업주·자본가·정부의 최고위관리 전문직·관리직 사무직·기술직 자영업·자영업자· 자영업주·자영업서비스업 퇴고용직·무직	#16(3.21) #130(26.05) #64(12.83) #46(9.22) #15(15.2)	가중생활주기	x <sup>2</sup> =5.617 DF=5 N.S.
대기업주·자본가·정부의 최고위관리	#16(3.21)	12(2.40)	정성기	
전문직·관리직	#130(26.05)	#110(22.04)	정출산및양육기	
사무직·기술직	#64(12.83)	#65(13.03)	자녀교육기	
자영업·자영업자· 자영업주·자영업서비스업	#46(9.22)	28(5.61)	자녀결혼기	x <sup>2</sup> =0.880 DF=3 N.S.
자영업·자영업자· 자영업주·자영업서비스업	#46(9.22)	28(5.61)	노년	
퇴고용직·무직	#15(15.2)	13(12.8)	정성기	
퇴고용직·무직	#15(15.2)	13(12.8)	정출산및양육기	
남편의 직업	#3(0.6)	#10(2.0)	정성기	x <sup>2</sup> =0.880 DF=3 N.S.
대기업주·자본가·정부의 최고위관리	#3(0.6)	#10(2.0)	정출산및양육기	
전문직·관리직	#10(2.0)	24(4.8)	자녀교육기	
사무직·기술직	#10(2.0)	#139(27.86)	정성기	
자영업·자영업자· 자영업주·자영업서비스업	#46(9.22)	11(2.2)	정성기	x <sup>2</sup> =0.880 DF=3 N.S.
자영업·자영업자· 자영업주·자영업서비스업	#46(9.22)	11(2.2)	정출산및양육기	
퇴고용직·무직	#15(15.2)	15(3.0)	정성기	
퇴고용직·무직	#15(15.2)	15(3.0)	정출산및양육기	
남편의 직업	#3(0.6)	#10(2.0)	정성기	x <sup>2</sup> =0.880 DF=3 N.S.
대기업주·자본가·정부의 최고위관리	#3(0.6)	#10(2.0)	정출산및양육기	
전문직·관리직	#10(2.0)	24(4.8)	자녀교육기	
사무직·기술직	#10(2.0)	#139(27.86)	정성기	
자영업·자영업자· 자영업주·자영업서비스업	#46(9.22)	11(2.2)	정성기	x <sup>2</sup> =0.880 DF=3 N.S.
자영업·자영업자· 자영업주·자영업서비스업	#46(9.22)	11(2.2)	정출산및양육기	
퇴고용직·무직	#15(15.2)	15(3.0)	정성기	
퇴고용직·무직	#15(15.2)	15(3.0)	정출산및양육기	

\*P<.05 #기대치<관찰치

〈표 6〉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N=499)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관리행동유형		시장의 준형	응역형	응역형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정관리행동유형			
남편의 직업	20 ~ ~ ~ 세	29 세	#33(6.61) #70(14.03) 87(17.43) 45(9.02)	3(0.60) 57(11.42) #141(28.26) #63(12.63)	174(34.87) #61(12.22)
	남편의 직업	29 세	#46(9.22) 87(17.43) 88(17.64) 14(2.81)	12(2.40) #113(22.65) #112(22.44) #27(5.41)	$\chi^2=40.572$ DF=3 ***P=0.000
주부의 연령	20 ~ ~ ~ 세	29 세	#46(9.22) 87(17.43) 88(17.64) 14(2.81)	12(2.40) #113(22.65) #112(22.44) #27(5.41)	$\chi^2=28.725$ DF=3 ***P=0.000
	주부의 연령	29 세	6(1.20) 19(3.81) 149(29.86) #61(12.22)	#7(1.40) #49(9.82) #170(34.07) 38(7.62)	$\chi^2=9.526$ DF=4 *P=0.049
부모수준	중고대 대학원	하 하 하 상	6(1.20) 19(3.81) 149(29.86) #61(12.22)	#7(1.40) #49(9.82) #170(34.07) 38(7.62)	$\chi^2=19.653$ DF=3 ***P=0.000
	부모수준	하 하 하 상	10(2.00) 66(13.23) #140(28.06) #19(3.81)	#30(6.01) #109(21.84) 119(23.85) 6(1.20)	$\chi^2=13.727$ DF=3 *P=0.003
남편의 직업	대기업주 최고관리직 전문직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본가 정부의 리직 직 기술자 서비스업 직 무	9(1.80) #129(25.85) 58(11.62) 27(5.41) 12(2.40)	#19(3.81) 111(22.24) #71(14.23) #47(9.42) #116(3.21)	$\chi^2=26.498$ DF=5 ***P=0.000
	남편의 직업	자본가 정부의 리직 직 기술자 서비스업 직 무	8(1.60) 21(4.21) #165(33.07) #30(6.01) #21(4.21) #19(3.81)	8(1.60) 21(4.21) #165(33.07) #30(6.01) #21(4.21) #19(3.81)	$\chi^2=26.498$ DF=5 ***P=0.000

\*P<.05 \*\*\*P<.0001 # 기대치<관찰치

<표 7>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차이(N=499)

가정관리행동유형	시장의존형	용역형
생활양식유형		
자기충실형	40(8.05)	#101(20.32)
소극적침체형	44(8.85)	#69(13.88)
유행·편리추구형	#58(11.67)	58(11.67)
혁신·충동형	#93(18.51)	36(7.05)
전체	235(47.08)	264(52.92)

$\chi^2=82.579$  DF=3 P<.0001 # 기대치<관찰치

<표 8>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성향의 차이(N=499)

가정관리행동성향	타인지향형	내부지향형
생활양식유형		
자기충실형	38(7.61)	#103(20.64)
소극적침체형	55(11.02)	#59(11.82)
유행·편리추구형	#90(18.04)	26(5.21)
혁신·충동형	#89(17.84)	39(7.82)
전체	272(54.51)	227(45.49)

$\chi^2=56.002$  DF=3 P<.0001 # 기대치<관찰치

경향이 있다. 또한 근검절약하는 소비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생활에 충실할 뿐 아니라 대체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들은 부부의 연령이 30,40대로 중년층에 해당하며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남편의 직업형태는 다양하며 주부는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 가정의 소득은 61~80만원, 101만원이상에 해당하여 중상의 수준이다. 동거자녀수는 3명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가족생활주기는 자녀교육기와 자녀성년기에 해당하는 경향이 있다.

2) 소극적 침체형(22.7%)

연령적으로 부부의 연령이 40대와 50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가정에 국한시키고 있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고 의도한 일을 성취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감도 부족하다. 가정의 소득이 40만원 이하로부터 100만원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특징이

서 여가를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여가를 즐기려고 하지 않아서 여가시간을 지루하게 느끼기 쉽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노력이 부족한 비활동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동거자녀수는 3명이상으로 비교적 많고 가족생활주기는 형성기와 자녀교육기, 노년기에 해당하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이다.

3) 유행·편리추구형(23.3%)

남편의 연령은 40대와 50세 이상이며 주부의 연령은 30대와 50세 이상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에 해당한다. 부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로 낮은 편이며, 주부는 취업하고 있지 않다. 가정의 소득은 60만원이하로 중하층에 속하며 동거자녀수는 3명인 경향이다. 가족생활주기는 형성기와 자녀교육기, 그리고 자녀결혼기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유행과 건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제품 구입시 유행에 따른 선택을 하며 유명상표나 의제를 선호한다. 생활에 있어서는 편리성을 추구하여 남편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고 간편한 식사형태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재산증식을 위해서는 이사를 자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모든 가치척도의 기준이 물질뿐 아니라 편리성에도 있음을 반영한다. 여가시간은 다른 유형에 비해 포커나 화투놀이에 많이 할애되어 있고 TV프로 중에는 코미디와 쇼 등의 오락프로와 스포츠중계가 선호된다.

4) 혁신·충동형(25.6%)

연령적으로 부부의 연령이 20대와 30대로 젊은 층에 속하며, 부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으로 4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벗어나 여성의 취업에 관심을 가지며 가사작업에 대해서도 남편과 전가족 또한 가족외부인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이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경향이다. 가정의 소득은 81만원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며, 합리적 구매를 계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즉흥적 만족을 위한 충동구매를 할 때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가계수표 이용에 비교적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추구

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동거자녀수는 2명이하로 가장 적으며, 가족생활주기는 형성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로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경향이다.

###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

#### 1)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은 남편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남편의 연령이 20, 30대의 젊은층일수록 타인지향형의 가정관리행동 성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타인중심적 가치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타인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김동기(197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남편의 연령이 40세이상인 경우는 내부지향형의 가정관리행동성향이 나타났다.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은 남편의 연령을 제외한 그밖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관찰치와 기대치를 비교해 볼 때, 부부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남편의 직업이 대기업주, 자본가, 자영업, 피고용직 무직인 경우, 주부가 취업해 있고,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80만원이상인 경우, 동거자녀수가 2명이하로 비교적 적은 경우, 가족크기가 4명이상인 경우,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의 초기단계와 자녀결혼기 및 노년기의 후기단계인 경우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은 타인지향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지향형의 가정관리행동성향은 부부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고,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인 경우, 주부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41~80만원수준인 경우 동거자녀수가 3명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경우, 가족크기가 3명이하이거나 6명이상인 경우, 가족생활주기가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계속된 연구의 필요성과 아울러 인구통계학적 변수와는 다른 타변수와 가정관리행동의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 2) 가정관리행동의 유형

가정관리행동의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의 경우 부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시장의존형을 보이며, 부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용역형이 나타났다. 이는 젊은층일수록 편리위주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회화된 가사작업의 이용에 저항감이 없고, 가사작업에 익숙치 않아서 이용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의 경우를 보면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의존형을 보이며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용역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직업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일 때 시장의존형이 나타나며 용역형은 그밖의 다른 직업유형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주부는 취업했을 때 취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시장의존형을 나타냈다. 이는 주부의 취업이 가사작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자원의 부족을 가져오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방식을 주부가 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40만원이하이거나 81만원이상일 때 시장의존형이 많았고, 41만원-80만원의 소득수준일 경우에는 용역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이 싼 가공식품의 이용이 많은 반면, 소득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사회화된 가사작업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여유가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동거자녀수와 가족크기를 보면, 동거자녀수가 적고 가족수가 적을수록 시장의존형이 많고, 동거자녀수가 많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용역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가정관리행동의 유형이 가족구성원의 가사작업의 공동분담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의 경우를 보면 주부에게 요구되는 가사작업의 양이 증가하는 초기단계에 시장의존형이 많은 반면, 후기단계에서는 용역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 4.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실행된 분석작업을 통해 분류된 4가지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성향과 행동유형을 살펴보면 <표 7>과 <표 8>과 같다.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이 자기충실형과 소극적 침체형일 경우에 나타나는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은 내부지향형이며 행동유형은 용역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들이 유행·편리추구형과 혁신·충동형의 생활양식유형일 경우에는 타인지향형의 가정관리행동성향과 시장의존형의 행동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부들의 생활양식이 가정관리행동에 상경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생활양식상의 특징은 매우 다르지만, 자기충실형과 소극적 침체형은 타인이나 주변의 일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판단기준이어서 심리적 동기 또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가정의 제반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려는 반면, 유행·편리추구형과 혁신·충동형은 자신보다는 타인이나 주변의 일에 의해 좌우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가정관리행동은 동일한 성향과 행동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은 가정관리행동의 성향과 행동유형에 반영되어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부들의 생활양식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및 행동유형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가정관리행동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집락분석,  $\chi^2$ -test로써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었고, 그 각각은 구성항목의 특징에 의해 자기충실형(28.4%), 소극적 침체형(22.7%), 유행·편리추구형(23.3%), 혁신·충동형(25.6%)으로 명명되었다.

(2)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은 가족크기를 제외한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즉 부부의 연령,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직업, 소득, 동거자녀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3) 타인지향형과 내부지향형으로 구분하여 분석된 가정관리행동의 성향은 남편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그밖의 변수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4) 시장의존형과 용역형으로 구분한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5)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은 가정관리행동의 성향과 행동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즉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이 자기충실형과 소극적 침체형일 경우 가정관리행동은 내부지향형의 성향을 보이며 행동유형은 용역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부들이 유행·편리추구형과 혁신·충동형의 생활양식유형을 지니는 경우 가정관리행동은 타인지향형의 성향과 시장의존형의 행동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관리행동의 행동유형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생활양식유형에 따라서는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행동유형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관리행동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수(활동, 관심, 의견)를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양식유형의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생활양식유형의 분포는 통계적 기법의 의도적인 크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들이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어떤 가정관리행동을 나타낼지에 관한 예측과 해석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생활양식의 흐름은 알 수 없으며 또한 가정관리행동의 성향과 행동유형의 분포도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생활양식유형의 분포도를 밝혀주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통해 미래의 가정관리행동을 예측,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변화의 양상도 밝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장명옥, 「가정관리학」, 서울: 교문사, 1984, pp.38~44.
2. 김동기, 「현대마케팅 원론」, 서울: 박영사, 1982, p.152.
3. Allport, G.W., *Pattern and Growth of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 Winston, 1965, p.237.
4. Kelly, G.A.,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vol. 1., N.Y.: W.W. Norton & Co. 1955, p.56.
5. Adler, A., "The Science of Living", *Ancient Book*, ed., Ansbacher, N.Y.: Doubleday & Co., 1969, pp.138~140.
6. Lazer, W.,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Toward Scientific Marketing*, ed., Greysen, S.A., Chicago: AMA, 1963, p.130.
7. Assael, H.,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2nd. ed., Boston: Kent Publishing Co., 1983, p.252.
8. Rom, J. & Markin, Jr., *Consumer Behavior: A Cognitive Orientation*,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4, pp. 438~440.
9. Engel, J.F., Blackwell, R.D. & Kollat, D. T., *Consumer Behavior*, 3rd. ed., Hinsdale Illinois: Dryden Press, 1978, p.174.
10. 이차욱,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특히 서울시 내 거주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1983, p.19.
11. 김동기, 1982, pp.188~190.
12. Engel, J.F., Blackwell, R.D. & Kollat, D. T., 1978, p.190.
13. 송용섭, 「현대소비자 행동론」, 서울: 박영사, 1982, p.160.
14. 강이주,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분석—서울의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1984, p.11.
15. Wells, W.D., "Psychographic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2. 1975, pp.196~213.
16. Cohen, D., *Consumer Behavior*, N.Y.: Random House, 1981, p.249.
17. Ziff, R., "Psychographics for Market Segmentation",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11, 1971, p.3.
18. 송용섭, 1982, p.160.
19. Wells, W.D. & Tigert, "Activities, Interests and Opin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11, 1971, pp.27~35.
20. 이차욱, 1983, pp.68~70.
21. 문숙재, "문화가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3호, 1980a, pp. 21~28.
22. Schlater, J.D., "The Management Process and Its Core 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1967, p.59.
23. Paollucci, B., "An Historical Overview of Concept Identification in Home Management", *Conceptual Framework*, Michigan state Univ., 1964, pp.3~5.
24. Nickell, Rice, P.A. & Tucker, S.,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Y.: John Willy and Sons, Inc., 1976, p.31.
25.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 M.,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3r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1973, pp. 3~4.
26. Andrews, B.R., *Economics of the Household*, 1935, p.1.
27. 장명옥, "서울시 주부의 가정관리 실태조사," 가정관리학 학술 세미나주제 발표요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1976a, pp.38~39.
28. Thompson, I.H., Van Houton, D.R., 이문웅(역), 「행동과학의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p.17.
29. Gross, I.H., Crandall, E.W. Knoll, M.M., 1973, p.112.

30. Riesman, D., 이만갑(역), 「고독한 군중」 서울 : 을서문화사, 1983.
31. 김동기, 「소비자 행동에 대한 행태 과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논문집, 인문과학편, 16집, 1970, pp.154~155.
32. 문숙재,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1981, p.1.
33. ———, 「가사 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4호, 1982, p.179.
34. Walker, K.E. & Woods, M.E., *Time Use*, N.Y.: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p.1.
35. Deacon, R.E. & Firebaugh, F.M.,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5, p.142.
36. 정영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가사 노동의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1호, 1984, p.176.
37. Beutler, I.F., & Owen, A.J., 「Household Production: A Cultural and Cross-National View」, *The Household As Producer*, Linderwood College, 1979, pp.16~17.
38. Reid, M.G.,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Y.: John Wiley and Sons, Inc., 1934, p.11. Hefferan, Co., 「What Is a Homemaker's Job Worth? —Too Many Answers」, *Journal of Home Economics*, Fall, 1934, p.30.
39. 문숙재, 채옥희, 「가사노동」, 서울 : 신광출판사, 1986, p.16.
40. 앞 글, pp.214~215.
41. 강정옥,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실태조사: 식생활을 중심으로」, 건국대석사논문, 1984, p.10.
42. 문숙재, 채옥희, 1986, pp.215~216.
43. Fitzimmons, C. & Williams, F., *The Family Economy: Natur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Ann Arbor: Edward Brothers, 1973, p.382.
44. 홍두승, 「직업 분석을 통한 제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5권 3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3, pp.72~80.
45. 유영주,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생활 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학회지, 제 2권 1호, 1984, pp.111~129.
46. 정성자, 「주거 선택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78, pp.119~128.
47. 문숙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논총, 37집, 이대출판부, 1980b, pp.370~379.
48. 장명옥,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의 실태조사와 그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제 1권, 1976b, pp.21~53.
49. 강정옥, 1984, pp.45~54.
50. 문숙재, 1980b, pp.370~379.
51. 장명옥, 1976b, pp.21~53.